

한·미 무관세화가 오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용진
한국오리협회 전무

1. 분석의 문턱에서
2. 오리고기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3. 관세율과 오리 산업과의 상호 관계
4. 탄력치 산출을 위한 모델 설정
5. 축종별의 자체가격탄력치와 대체가격탄력치
6. 무관세화에 따른 감소액 추정 결과

1. 분석의 문턱에서

미국의 쇠고기 수입이 지난 9월 중순경에 허용이 되어 추석 이후에는 미산 쇠고기가 다시 우리 식탁에 올라올 전망이다. 또 철새가 오는 계절이 다가오니 AI가 걱정이 되고, 그 때문인지 옛날에는 아름답게 느껴졌던 철새가 반갑지만은 않게 되었다. 또 금년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미FTA협상은 우리 오리업계의 앞날을 밝지 않게 하고 있다. 한미FTA협상의 중요한 안건은 양국 간의 무관세화이며, 이로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세계 무역질서에 동참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의 모든 축산업계는 생산, 선별, 포장, 저장, 물류이동 시스템, 소비자의 판매망 등 모든 여건이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도 미숙한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모든 축산업계가 걱정을 하면서, 각각의 산업에 미치는 피해액을 산출하여 보도하면서, 한미FTA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미FTA특별대책연구단에서 발표된 축종별의 피해액을 보면 한우가 5,500억 원, 양돈이 2,500억 원, 낙농이 747억 원이 된다(농민신문 2006.8. 14)고 하였다. 축산업계 측에서는 이러한 숫자는 피해액을 의

도적으로 축소시켰다고 크게 반발한다. 한우는 1조1,000억 원, 양돈은 3,311~9,556억 원(용역보고서 P95, P99), 낙농은 2,000억 원. 양봉은 1,350억 원 이상이라며, 양봉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피해액도 산출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 오리산업도 현재 피해액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용역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필자 개인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오리협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표 1〉 오리품목 분류(HSK) 관세율

HSK 번호	품명	기본 세율(%)	양허기준 세율(%)	2006양허 세율(%)	비고
0105 19 1000	오리(185g 이하)	20	20	18	
0105 99 1000	오리(기타)	20	20	18	
0210 99 1030	가금류(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30	29.6	22.5	
0210 99 1090	육 또는 식용설육(기타/분,조분)	30	29.6	22.5	
0207 32 0000	오리, 거위, 기니아(미절단/냉장)	30	20	18	
0207 33 0000	오리, 거위, 기니아(미절단/냉동)	30	20	18	
0207 34 0000	오리, 거위, 기니아(지방간/냉장)	30	25	22.5	
0207 35 1000	오리, 거위, 기니아(절단육/냉장)	30	20	18	
0207 35 2010	오리, 거위, 기니아(간장/냉장)	30	25	22.5	
0207 35 2090	오리, 거위, 기니아(기타설육/냉장)	30	30	27	
0207 36 1000	오리, 거위, 기니아(절단육/냉동)	30	20	18	
0207 36 2010	오리, 거위, 기니아(간장/냉동)	30	25	22.5	
0207 36 2090	오리, 거위, 기니아(기타설육/냉동)	30	30	27	

2. 오리고기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오리에 대한 관세율을 보면 기본세율은 모든 품목이 30%이나 양허기준세율과 2006년도의 양허세율은 품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손쉽게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율을 높이고, 수입하기가 비교적 곤란한 것 즉, 유통기간이 짧다거나, 변질가능성이 높은 것은 세율을 낮추어서 국제간의 무역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상대국도 그러할 것이니, 국가 간의 협상이 결코 쉽지만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우리 오리와 관련된 품목은 한국표준분류 10단위에 의하면 산 동물인 오리는 2개 품목, 그리고 오리고기와 관련된 품목은 11개로 전체 13개 품목이 오리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현시점에서는 2006년도의 양허관세가 중요한데, 오리관련 11개 품목의 관세율은 18%에서 27%까지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HS분류 8단위나 10단위나 다같이 산동물이 아닌 품목을 보면 오리고기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리고기만을 분